

# 建設交通 常任委員會 會議結果報告

## ■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건설교통위원회

□ 일 시 : 2014. 7. 9(수) 10:00 ~ 16:30

□ 안 건

1.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2.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

□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7名(김금용, 김경선, 신은호, 최석정, 손철운, 이도형, 황인성 의원)

※ 참석공무원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등 30명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섭 등 30명

□ 부의안건

1.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추진단내 디자인 전공자 현황 제출 요청(황인성 의원)
- 외국의 선진도시를 배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디자인 분야의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학 및 홍익대학 등과 관학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황인성 의원)  
⇒ 노력하겠음.
- 간판 정비 정책이 반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개성없는 디자인, 지역특성 미반영, 사후관리 문제점 등이 있었는데...(손철운 의원)  
⇒ 시비 보조를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함.
- 간판 정비도 중요하지만 전선 지중화를 하지 않고는 효과가 저감될 것인데, 지중화사업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손철운 의원)  
⇒ 의원님 생각에 동의함. 다만, 사업지중화사업은 사업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 시비를 보조해도 구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간판 정비사업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손철운 의원)  
⇒ 90%이상이며, 1개 업소당 200~300만원 정도임.
- 간판정비 사업에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손철운 의원)  
⇒ 그렇게 하겠음.
-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김경선 의원)  
⇒ 예산배정 지연으로 인함.

- 4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인천시 경관개선, 디자인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김경선 의원)
- ⇒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AG개최를 대비한 사업들이 실제 추진계획을 보면 AG이후에 추진되는 것은 당초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김경선 의원)
- ⇒ 교부금 교부일정과도 일부 연관이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 동구의 광고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김경선 의원)
- ⇒ 구별로 많이 상이하며, 독려하겠습니다.
- 광고물 정비 주체는 누구인가?(김경선 의원)
- ⇒ 구·군임.
- 2009년도 도시축전 당시 설치한 조형물의 사후관리는?(김경선 의원)
- ⇒ 해당 부서 또는 구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본의원이 알기로 도시축전 당시 설치한 경관등 일부가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음. AG경기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람.(김경선 의원)
- ⇒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AG에 초점을 둔 사업들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 예산 타을 하면 되겠나?  
(김금용 의원)
- ⇒ 예산이 부족하고 구군과 매칭하는 사업이 많다보니 그렇게 되었음.
- 현재 기준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자료 제출 요청(김금용 의원)
- 원도심일수록 경관개선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군구별 경관개선사업 현황 자료 제출 요청.(김금용 의원)
-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는?(신은호 의원)
- ⇒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공공용 현수막에 대하여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 주기 바람.(신은호 의원)
-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슬로건(Fly Incheon)에 대한 인천시민의 인식률이 낮은 것을 알고 있나? 인천광역시의 위상에 맞는 도시브랜드 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신은호 의원)
-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일시적 단속 아닌가? 단속 이후에는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최석정 의원)
- ⇒ 과태료 부과도 병행하고 있음.
-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인터넷과 SNS로 유도한 사례가 있는지?(최석정 의원)
- ⇒ 아직까지는 없으나, 광고아카데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 광고아카데미는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최석정 의원)
- ⇒ 현재 인천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 관련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대형건설업체 관련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 남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실적도 있으나 불법 현수막 설치는 지속되고 있음. 비용 대비 광고효과는 불법현수막 만한 것이 없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김금용 의원)
- ⇒ 검토하겠음.

## 2.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

### ○ 질의 및 답변

- 현재 평택항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평택항을 능가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황인성 의원)
- ⇒ 화물물동량만을 보면 부산, 광양에 이은 3위이며, 대 중국의 거점항만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크루즈 관광여행객 유치 가능한 이점이 있음. 신항(화물), 내항(관광), 북항(벌크선) 간의 기능 특화 및 분산이 필요할 것임.
- 공항공사와의 상생협력에 대하여?(황인성 의원)
- ⇒ 인천공항의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음.
- 여객선 입출항과 화물선적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신은호 의원)
- ⇒ 해양경찰청과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 매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신은호 의원)
- ⇒ 인천시가 일정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김경선 의원)
- ⇒ 검토해보겠음. 다만, 현재 서해5도 주민에게 지원해주고 있으나 강화도 일부 접경지역 주민들과 차별 논란이 있음.
- 노후된 어업지도선의 교체가 시급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김경선 의원)
- ⇒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시장님 공약사항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 할인이 가능한 것인가?(김경선 의원)
- ⇒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커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기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부담비율을 선 조정한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월호 사건 이후 여객선 탑승 시 신분확인절차가 너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어 연로한 도서민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음.(김경선 의원)  
⇒ 제도적으로는 매표시와 개찰구에서 확인토록 되어있음. 확인 후 처리하겠음.
- 용진군 어업지도선의 평균 선령은?(김금용 의원)  
⇒ 20년 이상임.
- 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은 차이가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여객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령제한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김금용 의원)  
⇒ 어업지도선, 환경정화선은 현재 선령기준이 없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자 함.
- 인방사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임. 2015년까지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이도형 의원)  
⇒ 양해각서를 새로이 체결해야할 것임.
- 국방부에서는 송도신항과 무의도를 인방사 이전의 유력한 후보지로 결정했고, 피폭 우려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중지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이도형 의원)  
⇒ MOU 자체 결함(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담고 있음)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로서 비용산출을 위한 정확한 이전 물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
- 인방사 이전 추산 비용은?  
⇒ 후보지에 따라 다르고 물량 정보가 불분명하여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개략적으로 현재의 인방사 부지의 자산가치(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음.
- 인방사 이전 관련 2010년 인발연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요청(이도형 의원)
- 인방사 이전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국가와 지자체 간 이전비용 문제 때문에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도형 의원)

| 일 시     | 차수 | 심 사 안 건                                | 비 고                |
|---------|----|--|--------------------|
| 7.10(목) | 5  | 1.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br>2.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 도시철도건설본부<br>종합건설본부 |

보고자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